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뒤늦게 시동

제주도 2020~2022년 목표로 제주연구원에 정책과제 의뢰
위킹그룹 과제·7기 공약 토대
11월까지 핵심과제 도출키로
시급 사업은 내년 본예산 반영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2020~2022년)을 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무게를 실어온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이 7기 들어 구호에 그치고 있다(본보 6월 18일자 8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달 제주연구원에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연구 과제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연구원은 민선 6기 시절 제주도 요청에 따라 2026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담은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제도 정비와 행정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의 섬 환경 기반 조성 ▷문화예술 창작 인력과 매개 인력 양성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연계 지원 등 4개 중점 과제에 20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같은 과제는 제주도 문화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 7기 문화예술 분야 공약 역시

기존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과 무관하게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 예술 창작과 향유 기회 확대를 이행 과제로 택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역시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과 별도로 지난 3~6월 전문가 위킹그룹을 가동했다. 당초 문화정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지만 정책 제안이 잇따르면서 문화예술(16개 과제), 문화산업(21개 과제), 제주역사·문화유산(14개 과제) 3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가 묶였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1년을 흘려보낸 상태에서 수립되는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은 내년부터 최소 3년간 시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정해 11월까지 보고서로 발간된다. 제주연구원은 기존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보고서에 근거해 민선 6기 핵심과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킹그룹 정책과제, 민선 7기 공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포럼 등을 통해 과제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월 말까지 추려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말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바다에서 묻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승수 작가 바다미술제에
환경에 경각심 대규모 설치
이달 28일 부산 다대포 개막

제주 이승수 작가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주최로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9바다미술제에 참여한다.

이번 바다미술제의 주제는 ‘상심의 바다’로 정해졌다. 12개국 20명(팀)이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인 바다를 배경으로 환경과 삶을 소재로 삼은 이야기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낸다.

전시는 상처의 바다, 변화의 바다, 재생의 바다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인류의 생존 근간인 생태를 난개발하며 드러난 상처들을 다층적 시선으로 발견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상처의 바다) 환경의 공통적 문제에 직면해있는 서로 다른 언어권 작가들의 작품을 공유(변화의 바다)하며 다대포해수욕장을 활용해 재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시각화(재생의 바다) 한다.



이승수의 바다미술제 작품작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상 이미지.

이승수 작가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규모의 설치작업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선보인다.

시멘트, 해양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을 재료로 쓸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을날 건반 위에 풀어낼 시적 풍경

독일 알렉세이 고틀라치 초청
베토벤 ‘템페스트’ 등 연주
제자인 제주 정운정 무대

우크라이나 태생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고틀라치(사진)가 가을 제주를 찾는다. 제주피아노학회 초청으로 이달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30대 초반의 젊은 연주자로 ‘관객을 압도하는 피아니스트’란 평을 듣는 알렉세이 고틀라치는 7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2011년 독일



ARD국제 콩쿠르 우승 등 일찍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지적 이면서 과장되지 않고 다채로운 음악을 연주

하는 그는 28세의 나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현재 유럽 각지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거나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맡는 등 신인 음악가를 발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초청 공연에서 그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 쇼팽의 ‘녹턴 제2번’, ‘스케르초 제2번’, 슈만의 ‘환상소곡집’을 선했다. 특히 그가 피아노로 빛나는 ‘템페스트’는 테크닉만이 아니라 시적이고 서정적이며, 음악이 흐르는 모든 순간에 의미있는 연주를 만들어낸다는 평이 따른다.

이날 알렉세이 고틀라치의 제자인 제주출신 피아니스트 정운정의 무대도 마련된다. 제주대 재학 중 독일로 건너간 정운정은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밟으며 알렉세이 고틀라치의 가르침을 받았다. 정씨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연주한다.

전석 초대 공연으로 관람료 무료. 문의 010-5742-0958. 진선희기자

작은도서관 독후감 대회

(사)제주도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장동훈)는 제3회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독후감대회’를 연다.

이번 독후감대회는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뉘 치러진다. 응모 도서는 부문별 10권씩으로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www.jejusmalllibrary.or.kr) 공지사항에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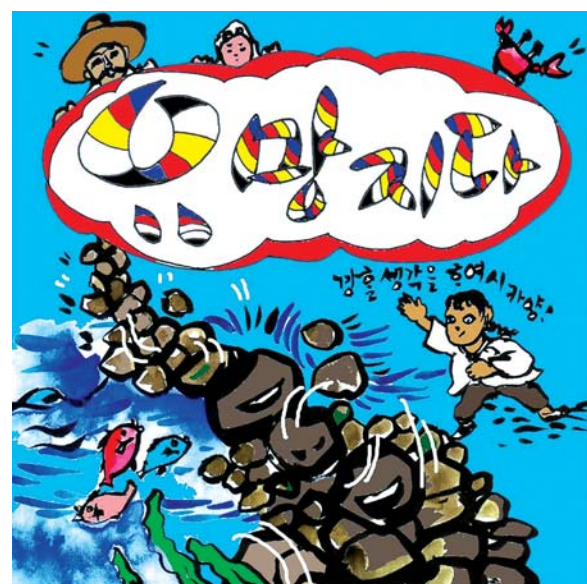
응모기간은 9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일반부 대상에 제주도지사상, 초등부와 청소년부 대상에 제주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원고분량은 초등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용지 1~2매), 청소년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2~3매), 일반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3~4매)이다. 문의 064)713-2727.

고재만의

제주어기담판

<169>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의 궂은 말, “죽은 바위돌이 쉬질 아니함명 모다들언게. 경학단 보난 바위돌이 잘도 하영 모다들어서라게. 큰큰하바위산을 너근하게 맹글 아짐직도 하여라마는 흑룡은 안적도 묵음에 들지 안하영저. 흑룡은 궁리학단 놀레 불르명 바위돌을 모와보젠 하영주.”
오맹이가 들었져, “하르바님- 어뎡 경홀 생각을 하여시카양!
흑룡은 출발 오망지우다양. 놀레 불르명 학민 좋으쿠다.
놀레는 무신 놀렐불러마씀? 물 소곰이서 놀레불러민 어뎡웨코양?”

* 제주어 풀이

*쉬질 아니함명 모다들언게 : 끊임없이 모여들었어.

*맹글아짐직도 하여라마는 : 만들어질 것도 같은.

*안적(안적) : <어찌>아직. *묵음에 들지 안하영저 : 마음에 들지 않았단다.

*놀레 불르명 : 노래를 부르면서.

*어뎡 경홀 생각을 하여시카양 :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출발 오망지우다양 : 정말 야무지네요. *오망지다 : <그림>(사람이)복복하고 야무지다.

*무신 놀렐불러마씀? : 무슨 노래를 불러요?

*불러민 어뎡웨코양? :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 / <이름>:이름씨(명사) / <그림>:그림씨(형용사) / <음역>:음역씨(동사) / <어찌>:어찌씨(부사) / <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 / <셈>:셈씨(수사) / <느낌>:느낌씨(감탄사) / <도>:도씨(조사) / <때소>:때가림소 / <익은말>:익은말 / <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성희룡으로부터 안전한 조직 만들어 달라”

제주문예재단 고충처리위원
직장내 성희롱 관련 입장문

제주문화예술재단 고충처리위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위원은 10일 문예재단 SNS에 올린 공개 입장문에서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의 개요를 알린 뒤 그간의 처리 과정에서 ▷재단 정규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등에 나온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인사위원 자질 등 중대한 문

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거치며 가해자에게 중징계 처분(징적 1개월)이 내려졌지만 당사자의 재심 청구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감봉 3개월)가 의결됐다.

그는 “피해자가 사법기관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장 내 고충 처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신뢰할 만한 조직이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 절차에 의거해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징계를, 피해자에게는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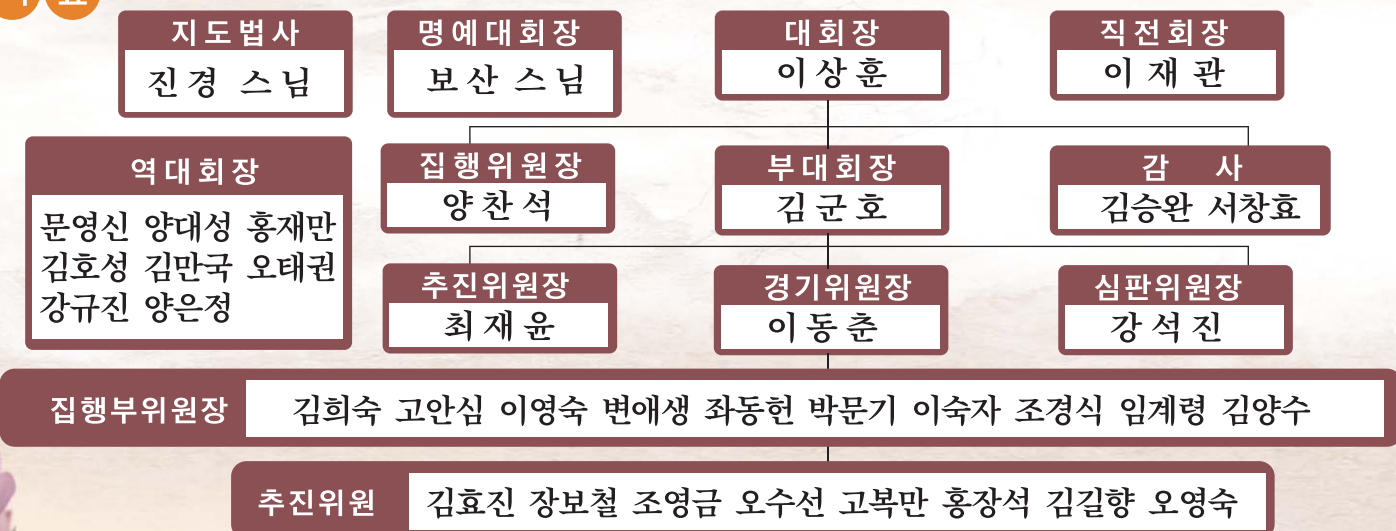
제12회 제주불교대학총동창회 어울림 한마음대축제

일시 불기2563(2019)년 **9월 22일(일)** 오전 10시(식전행사 9시 40분)

장소 오현고등학교체육관

귀의 삼보하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님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12회 제주불교대학총동창회 어울림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즐거운 한마당이 될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표



제주불교대학총동창회 대회장 이 상 훈

경기종목

남여 혼성배구 / 바둑양궁경기 / 장작꽃놀이 / 4인 물배업고 달리기 / 풍선기둥세우기
초대가수 : 평양예술단 권설경 등 이벤트 행사

기별회장단

1기 백 응 옥	24기 한 재 림
2기 문 익 중	25기 고 윤 형
3기 김 옥 산	26기 이 영 속
4기 박 일 철	27기 김 창 우
5기 강 중 수	28기 박 영 속
6기 문 성 속	29기 원 태 철
7기 김 양 옥	30기 김 동 회
8기 고 창 용	31기 정 찬 국
9기 김 수 환	32기 송 승 호
11기 조 형 준	33기 장 봉 훈
12기 안 형 석	34기 양 찬 석
13기 오 은 보	35기 오 문 선
14기 정 철 진	36기 변 호 근
15기 정 호 철	37기 박 종 신
16기 강 규 진	38기 김 대 오
17기 변 정 자	39기 장 보 철
18기 이 동 춘	40기 김 진
19기 김 영 진	41기 김 성 속
20기 김 명 순	42기 이 상 훈
21기 문 중 신	43기 오 승 철
22기 임 승 금	44기 김 속 자
23기 신 태 식	45기 김 옥 남

· **주최:** (사)한국불교대고종 제주불교대학총동창회

· **후원:** 한국불교대고종제주교구 종무원 / 한국불교대고종제주교구 신도회 / 대교보현불사단 / 대교법륜불자회 / 대교연합참찬단